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kc@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되돌아보는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오늘 미사 후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 ◆ **신영세자 첫 고해성사**
 - 고해성사 교육: 6월 28일 오후 2시 사제관
 - 첫 고해: 6월 29일 주일 미사 전
- ◆ **황석두 구역모임**
 - 일시: 6월 28일 오후 6시
 - 장소: Highbanks Park (Oak Coves Picnic Area)
- ◆ **친교 준비 봉사자**
 - 6월 22일: 서인원
 - 6월 29일: 사윤진
- ◆ **6월 친교 후 봉사: 정하상 구역**
-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는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 매월 셋째 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5월말까지 모금액은 \$2,9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29.00
교 무 금	\$260.00
감 사 헌 금	\$200.00
BAA	\$100.00

- **교 무 금:** 김도형 이영수 김승재
- **감사헌금:** 오용민
- **BAA:** 이영수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연중 제12주일 June 22, 2008



<사도의 손>

알브레트 뒤러(1471-1528), 종이 위에 드로잉, 알베르티나 관화관, 비엔나

“너희는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0,10-13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5,12-15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께서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0,26-33
“너희는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445단 12명
이호영	단 명	8,538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495단 6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 - 6/15/08 (225주)

♣ 총누계: 197,538단 12,674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6월 22일	6월 29일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독서/봉헌	신현태 김은영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44 ♫ 봉헌: 215
♫ 성체: 500 187 ♫ 파견: 472

하느님의 힘에 의한 일치와 화해

변종찬 마태오 신부, 서울대교구

우리는 기도를 정의할 때 흔히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다’ 혹은 ‘과연 하느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귀 기울이시는가?’ 하는 질문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또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던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 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신명 30,1-3).

오늘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스스로 하느님을 벗어나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혹은 입으로는 하느님을 부르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오로는 새 생활의 규범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32)라는 권고입니다. 사실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이, 특별히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에페 5,2)라고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으로 하여금 다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체험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만 청했는지 아니면 진정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마음 속의 미움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화해와 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해 줍니다. 인간 안에 자리한 분열과 다툼이 인간의 이기적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화해와 일치는 하느님의 힘에 의해 이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하느님의 손길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가 아닌 매일의 기도 지향이었던 합니다.